

Multilingual Electronic Newsletter

多言語メールマガジン

かごしま南の風便り

Kagoshima Southern Wind Tidings



VOL.184

1 국제교류원 칼럼(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원 이민)

봄을 알리는 매화

2 지사 관련 새소식

일본-베트남 외교 관계 수립 50 주년 기념 「베트남 페어 in 가고시마 2023」을 개최하였습니다(11 월 23 일)

3 가고시마 국제교류

싱가포르 대표단을 맞이하여 「제 21 회 가고시마・싱가포르 교류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11 월 21 일~23 일)

4 관광 가고시마 제철 정보

이즈미(出水)시 두루미 관찰 센터

●봄을 알리는 매화●

-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원 이민(싱가포르 출신)

이제 곧 추운 겨울이 지나고 활기로 가득 찬 봄이 찾아옵니다! 다시 한 번 따뜻함과 꽃의 계절이 돌아올 예정인데요. 얼마 전에는 앞으로 봄의 기운으로 가득 채워질 요시노 공원을 방문하여 선명한 빛깔의 매화를 보고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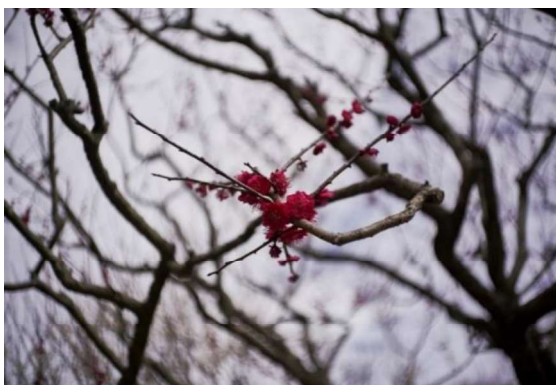
봄하면 벚꽃의 계절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매년 봄이 되면 벚꽃 시즌, 만개, 꽃놀이 등의 이야기로 무르익는데요. 특히 외국인들에게 벚꽃은 일본의 봄을 대표하는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러나 벚꽃만큼이나 일본 문화와 역사에 깊게 뿌리내린 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매화는 겨울이 지나고 처음 피는 꽃으로, 봄의 시작을 알리는 꽃입니다. 품종에 따라 개화 시기는 다르지만, 가고시마에서는 2 월에서 3 월 사이에 볼 수 있습니다.

벚꽃과 같이 매화에도 여러 품종이 있어 흰색부터 진분홍색까지 다양한 색을 띠는데요. 그 중에서도 붉은색의 가고시마 홍매화는 진한 빛깔을 띠는 매화의 대표 품종입니다.

매화는 벚꽃과는 다르게 꽃잎이 톱니 모양이 아닌 둥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짙은 달콤한 향이 나는 것도 매화의 특징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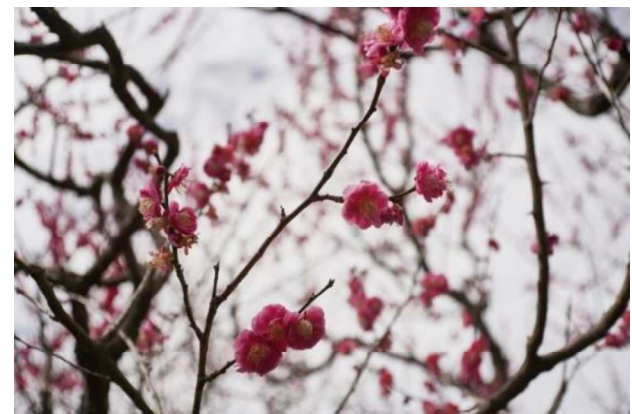


가고시마 홍매화

매화의 기원은 나라 시대에 중국에서 일본에 도래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 아름다움과 상징성으로 인해 빠르게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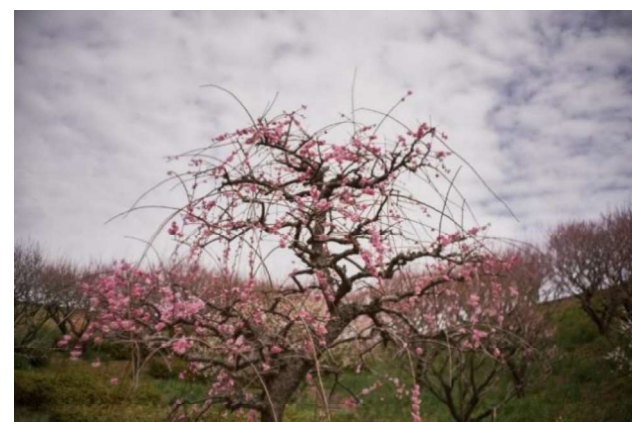
중국에서 매화는 지구력, 용기, 인내심, 신뢰를 의미하는 동시에 겨울의 끝자락과 봄의 시작을 알리기도 합니다. 봄을 맞이한다는 것은 농번기에 접어든다는 것도 의미하여 번영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러한 의미에서 설날에 자주 사용되고는 하는데, 싱가포르에서도 매화를 모티브로 한 설날 장식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일본의 꽃놀이는 매화를 구경하며 즐기던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나라 시대에서 헤이안 시대 초기까지는 매화가 봄의 꽃으로 자리잡고 있었지만, 헤이안 시대 중기로 접어들면서 벚꽃에 그 자리를 내어 주게 됩니다.



최근에 '벚꽃 자르는 어리석은 자, 매화 자르지 않는 어리석은 자'라는 매화와 벚꽃에 관한 재미있는 속담을 배웠습니다. 벚꽃의 경우에는 가지가 잘려 나간 곳에 균이 들어가면 쉽게 썩어 버리기 때문에 자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반면,

매화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가지를 자르지 않고 방치하면 나무의 형태가 무너져 버린다고 합니다. 닮은 듯 보이지만, 각각의 개성에 맞는 손질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확실히 매화와 벚꽃은 언뜻 보면 혼동하기 쉽습니다.



요시노 공원을 나오면서 아름다운 매화를 다시 한 번 바라보았습니다. 매화 다음으로는 벚꽃이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테지요. 그 후로도 다종다양한 꽃들이 자신들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를 또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사 관련 새소식

●일본-베트남 외교 관계 수립 50 주년 기념 「베트남 페어 in 가고시마 2023」을 개최하였습니다(11 월 23 일)●

일본-베트남 외교 관계 수립 50 주년 기념 「베트남 페어 in 가고시마 2023」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페어는 일본-베트남 외교 관계 수립 50 주년을 축하함과 동시에 현내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과 현민들과의 교류 촉진을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당일에는 주일 베트남 대사관의 Phạm Quang Hiệu 특명전권대사가 오프닝 세리머니를 위해 참석하였으며, 많은 베트남인들과 현민들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습니다.

오프닝 세리머니가 끝난 후에는 Hiệu 대사와 함께 양국의 우호 발전을 바라는 메시지를 적어 회장 내 트리에 걸었습니다.

앞으로도 베트남과의 관계 강화를 도모할 것이며, 베트남인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지사 인사



기념품 증정



메시지 트리

가고시마 국제교류

●싱가포르 대표단을 맞이하여 「제 21 회 가고시마・싱가포르 교류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11 월 21 일~23 일)●

싱가포르의 Sam Tan 전 외무담당 겸 사회・가정개발담당 국무 대신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11 월 21 일에서 23 일까지의 일정으로 맞이하여 「제 21 회 가고시마・싱가포르 교류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회의는 쌍방의 교류 촉진을 위한 협의로, 1982 년 이래 2 년마다 상호 지역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교류회의에서는 경제, 관광, 문화, 청소년 교류 등 8 개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싱가포르는 세계 굴지의 글로벌 도시로, 가고시마현 생산품의 판로 확대와 관광객 유치의 촉진이 기대됩니다.

이번 교류회의를 계기로 하여 앞으로의 가고시마와 싱가포르의 연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회의 모습



●이즈미(出水)시 두루미 관찰 센터●



제공: 공익사단법인 가고시마현 관광연맹

새들의 보금자리인 간척지 앞에 지어진 전망소로, 이즈미의 주요 겨울 관광지입니다. 매년 10 월 중순이 되면 시베리아에서 특별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두루미가 약 1 만 마리 넘게 도래하여 이곳에서 3 월경까지 겨울을 납니다.

2 층 전망실과 옥상 전망소에서는 두루미의 우아한 자태와 먹이를 먹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즈미의 두루미는 주로 흑두루미와 재두루미로, 최근 몇 년은 1 만 마리 이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수가 마을 근처에서 월동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이즈미 평야가 유일하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눈에 있는 두루미 가족과 드넓은 하늘을 나는 모습은 압권입니다.

우아한 두루미를 가까이서 보기 위한 전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고시마현청 홈페이지 <http://www.pref.kagoshima.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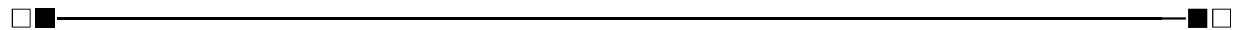
편집후기 (가고시마현 관광 · 문화스포츠부 국제교류과)

새해가 밝은 지 한 달 반이 흐른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2 월은 도망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눈 깜짝할 새에 흐르는 만큼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고대하며 1 월 1 일을 더욱 소중히 보내고 싶은 것이겠지요.

여러분에게 있어 올 한 해도 멋진 1 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호도 기대해 주세요!



「가고시마 남쪽바람소식 게시판」에서는 가고시마에 관한 화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 및 게재합니다.

1. 가고시마 포토 갤러리

가고시마만의 매력이 담긴 사진이나 해외에서 발견한 가고시마의 사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더미처럼 쌓인 화산재 봉투)

2. 가고시마 생활의 지혜

가고시마의 생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주십시오. (예: 사쓰마아게를 맛있게 먹는 법, 화산재 대처법)

이 밖에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할 여러분의 다양한 정보를 기다립니다.

▲▽▲▽ 기사 제공 및 문의처 ▲▽▲▽

일본 가고시마현 관광 · 문화스포츠부 국제교류과

〒 890-8577 가고시마시 가모이케 신마치 10-1

TEL: +81-99-286-2306

FAX: +81-99-286-5522

↓ 전자메일 주소

영 어 : cir1@pref.kagoshima.lg.jp

한국어 : cir3@pref.kagoshima.lg.jp

일본어 : minami@pref.kagoshima.lg.jp

본 기사의 저작권은 가고시마현에 있습니다. 무단게재와 불법복사를 금합니다.